

대량살인 범죄자와 연속살인 범죄자의 유형과 특징

박 형 민*

국 | 문 | 요 | 약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다수살인의 하위유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범죄는 공식통계를 통해 추정해 볼 때 점차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유형의 살인 범죄를 면접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량살인은 ‘분노형’(가족학살형/이웃학살형/치정살해형)과 ‘이득추구형’(강도살인형/범행은폐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연속살인은 ‘복수형’과 ‘불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범행당시와 어린시절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기술이 부족하였다. 또한 첫 번째 살인이 이후 살인의 촉발요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분노형 대량살인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선행되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득추구형 대량살인은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연속살인 범죄자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 주제어 : 대량살인, 연속살인, 좌절, 의사소통능력, 책임의 외부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1. 머리말

지난 2008년 10월 서울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의 범죄자(남, 30세)는 자신의 고시원 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시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며, 화재를 피해 뛰어나오는 한 여성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렀으며, 이후 3층과 4층을 돌아다니며 9명을 차례로 흉기로 찔러 그들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혔다.

이러한 유형의 살인은 지난 1982년 4월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그리고 2007년 4월 조승희의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시에 복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대량살인(mass murder)이라 부른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량살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공통점과 함께, 대다수가 남성이고(Fox and Levin, 1994a), ‘어린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진 경우가 많다’(Lester, 1995; Gresswell, 1991; Stone, 2001)는 등의 몇가지 공유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이 저지른 연쇄살인(serial murder)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는 범죄이다¹⁾. 한편 일반적으로 연속살인은 장소를 이동하여 여러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량살인과 거의 유사한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Gresswell and Hollin, 1994; Keeney 1995, Lester, 1995), 여기에서는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을 함께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살인범죄 중 대량살인의 사례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살인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토대로하여 살인범죄자 1인당 발생건수를 집계해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신의기 외, 2008). 이처럼 살인 범죄자 1인당 발생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명의 공범이 1건의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혼자서 1건의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수보다, 한사람이 여러건의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1) 일반적으로 다수살인(multiple murder)은 복수의 피해자를 가지는 살인 범죄 일반을 지칭하며, 이것은 대량살인(mass murder), 연속살인(spree killing), 연쇄살인(serial murder)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Gresswell and Hollin, 1994; Keeney 1995; Lester, 1995; Holmes & Burger, 1988).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같은 살인의 자극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무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혼용하거나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대량살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²⁾.

〈표 1〉 살인범죄자 1인당 발생 건수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0.95	0.91	0.97	0.96	0.95	0.99	1.11	1.11	1.11	1.16

* 발생건수÷범행자수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그런데 언론이나 일부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대량살인(혹은 연속살인)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 혹은 ‘무동기 살인’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행위 중에는 아무런 동기가 없는 행위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히 잘못된 명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즉각적인 촉발요인이 발견되지 않거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묻지마’ 또는 ‘무동기’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모든 설명을 다 한 듯 여기는 풍토는 지적인 태만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풍토는 대량 살인과 연속살인이 일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견 행위의 동기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무동기’라는 것을 그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만족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에 대해서 동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량살인(연속살인) 범죄자의 심리적 동기나 원인을 찾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량살인 범죄자 및 연속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면접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도록 할 것인데,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대량살인 및 연속살인 범죄자의 범행당시 상황 및 심리적 특성, 범죄자의 행위 동기 등을 실증적으로 드러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질적인 접근 방법의 특성상 통계적으로

2) 물론 이는 연쇄살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아직은 연쇄살인의 발생 건수가 우리 사회에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통계값의 변화는 대량살인의 증가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드러난 징후들을 통해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들의 공통성과 독특성을 추출함으로써 대량살인 및 연속살인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대량살인의 정의와 유형

복수의 피해자를 가지는 살인 범죄 일반을 지칭하는 다수살인(multiple murder) 중, 대량살인은 복수의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Gresswell and Hollin, 1994; Keeney 1995; Lester, 1995; Holmes & Burger, 1988).

이같은 대량살인의 범의자들에 대해 디츠(Dietz, 1986)는 ‘가족학살자’(family annihilator), ‘무기도착자’(pseudo-commandos), ‘설치-도주형 살인자’(set-and-run-killers) 등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홈즈와 홈즈(Holmes & Holmes, 1997)는 ‘추종자’(disciples), ‘불만 많은 피고용자’(disgruntled employees), ‘불만 많은 시민’(disgruntled citizens), ‘미친 대량살인자’(psychotic mass murderers) 등의 네 가지의 유형을 추가하여 모두 일곱 가지의 유형으로 대량살인을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비록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Petee et al.,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인 구분이며 대량살인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나. 대량살인 범의자의 특성

폭스와 레빈(Fox & Levin, 2003)은 여러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대량살인 범의자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폭스와 레빈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대량살인 범의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의 심각한 좌절(frustration)을 겪었다는 것이다

(Palmer, 1960).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좌절의 시간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자아상)를 가지게 만든다(Fox & Levin, 2003). 그런데 대량살인 범죄자들은 자신의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Henry & Short, 1954).

오랜 기간의 좌절과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파멸같이 여겨진다면, 그들의 이후 행동은 대량살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Fox & Levin, 2003).

그러나 많은 대량살인 범죄자들은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안정의 원천이 없거나, 조언자가 없는 외톨이(loner)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가족, 친구, 형제애 등이 부족하며,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상실된 상태에서 삶을 지속해 오는 경우가 많다(Fox & Levin, 2003).

따라서 이들은 만족스러운 직장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과 애정 넘치는 관계를 맺는 등 남들이 쉽게 성취하는 일들을 자신은 전혀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고통 받고, 자신이 인간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게 되고,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공격성이 폭발하는 것이다(Fox & Levin, 2003).

이러한 이유로 대량살인자들은 피해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는다. 즉 대량살인 범죄자들은 명확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복수심일 경우가 많다. 대량살인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한 일로 인하여 표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폭발은 우연하고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며 도구적인 것이다(Fox & Levin, 2003).

그러나 때로 대량 살인은 다른 대량살인을 모방(catagion: copycat)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10대 고등학생의 대량살인은 대량살인의 모방력을 보여준다(Fox & Levin, 2003).

다. 연속살인

한편 연속살인은 한 가지 점만 빼다보면 연속살인은 거의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데, 대량살인범과 연속살인범의 차이는 복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소의 차이이다. 즉, 대량살인범은 한 장소에서 살육을 저지르는 반면, 연속살인범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차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Gresswell and Hollin, 1994; Keeney 1995, Lester, 1995). 연속살인범은 이른바 ‘움직이는 대량살인범’이라 할 수 있다.

3.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사례와 유형

가. 사례 수집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대량살인(연속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자료를 토대로 대량살인(연속살인)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인데, 이 조사는 대량살인(연속살인)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쇄살인을 포함한 다수살인(multiple murder)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이 다수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는 2008년 7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총 23명의 다수살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중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대량살인 범죄자 6명, 연속살인 범죄자 3명이다³⁾.

총 면접시간은 개인당 약 1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교정공무원의 배석 하에 1대1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면접조사시 반 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하여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교정기관의 특성 상 녹음기 등의 녹취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 면접지에 면접내용을 기록한 후, 면접이 끝난 직후 컴퓨터에 녹취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나. 사례 개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대량살인 범죄자와 연속살인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3) 나머지 14명의 다수살인 범죄자는 연쇄살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은 다음 <표 2>와 같다.

<사례 1>은 범죄자가 약물에 취한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두 자녀와 장인을 살해하고 장모는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사례의 범죄자는 사건 당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가출하자, 이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투사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분석 사례 개요

사례번호	살인피해자수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당시 나이	범행도구	최종 학력	직업
<사례 1>	3(1명 미수)	장인, 장모, 자녀들	36	칼	중퇴	금세공운영
<사례 2>	3	동네사람들	31	칼	고퇴	무직
<사례 3>	2(1명미수)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부모	30	테이프, 칼	대퇴	운전기사
<사례 4>	2	처의 내연남이라고 생각되는 남자의 자녀들	39	칼	대졸	회사원
<사례 5>	2	처음 만나는 사람들	16	칼	고퇴	무직
<사례 6>	4	사기사건의 피해자들 (동호회에서 만남)	45	전기충격기, 칼	고졸 (검정고시)	무직
<사례 7>	1(2명 미수)	동거녀, 동거녀 아들, 여인숙 주인	63	칼	초퇴	일용직노동자
<사례 8>	4(1명미수, 1명예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52	칼	중졸	종업원
<사례 9>	3(2명 미수)	처음 만나는 사람들	47	야구방망이	중퇴	무직

<사례 2>는 범죄자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전 가족(이웃에 살고 있던 중년 부부와 그들의 어머니)을 학살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자신에 대해 나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그들을 살해한 것이다. 이 사례의 범죄자는 이웃들을 살해할 당시 한 여학생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었으며, 사건 이전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험도 있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이웃들에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사건의 촉발요인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유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이었다. 범죄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다툰 후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웃 집에 들어가 사과를

요구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이 범죄자에게 따지고 들자 그들을 살해한 것이다.

〈사례 3〉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된 범죄자가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상해를 당한 후 도피하여 살해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범죄자는 여자친구가 심한 말을 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자신을 이용해왔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사례 4〉는 범죄자의 처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해 가출했다고 생각하여, 처의 내연남이라 여겨지는 남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처를 찾았으나 처와 내연남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 있었던 내연남의 자녀들과 실갱이 하다가 그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사례 5〉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공범들과 가정집에 침입하였으나, 금품 절취 후 피해자들이 공범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정주부(여, 30세)와 그녀의 딸(3세)을 한꺼번에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범죄자는 16세의 청소년이었으며, 공범들(남 17세, 여 15세, 여 17세)도 모두 10대의 청소년들이었다.

〈사례 6〉의 범죄자는 피해자들을 속여 범죄자의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들을 유인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죄자는 면접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사례 7〉의 범죄자는 자신의 돈을 가로채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그의 아들을 한꺼번에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1(여, 76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것에 양심을 품고 그녀를 찾아가 살해하려하였으나, 피해자1의 옆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던 피해자2(피해자1의 아들, 47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도 살해하려 하였으나 상해를 입히는 데에 그치고, 약 10여분 후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3(여, 68세)을 찾아가 그녀가 이전에 자신을 박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그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사례 8〉은 연결된 4건의 살인행위를 포함하는데, 이 사례의 범죄자는 오랫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자신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서 살해(또는 살해예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일련의 사건의 촉발요인은 사소한 것이었으나, 첫 번째 살인이 발생한 이후 흥분과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연속적으로 다른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으로 모두 4명이 살해되었

고,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례 9〉의 범죄자는 첫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요구한 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살해하였고, 둘째 범행부터는 노상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한 후 흥분상태에서 무차별적이고 연속적인 공격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둘째 범행 역시 첫째 사건의 충격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연속살인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유형

이들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유형구분이 가능할 것인데, 이 유형화는 대량살인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디츠(Dietz, 1986)과는 달리 대량살인 범죄행위의 특성과 공격행위의 동기를 고려한 것이다.

먼저 범죄행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공격행위가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 졌는지 혹은 위치의 이동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Gresswell and Hollin, 1994; Keeney 1995, Lester, 1995).

그리고 대량살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가 표출적인 성격이었는지 도구적인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분노형’과 ‘이득추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노형 대량살인’은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가족학살유형’, ‘이웃학살유형’, ‘치정살해유형’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득추구형 대량살인’은 직접적인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한 ‘강도살인형’과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폐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연속살인의 경우는 ‘복수형’과 ‘불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수형’의 경우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이며, ‘불만형’은 자신의 처지 또는 사회 일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 없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공격행위를 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유형과 분석대상이 된 면접 사례들 중 여기에 포함된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유형

살인유형		사례번호	사건동기	범행특징
대량 살인	분노 형	가족 학살형 〈사례 1〉	마약,경제적인어려움으로장인,장모 와사이가좁지않음.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
		이웃 학살형 〈사례 2〉	오래 전부터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 을 퍼뜨림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 에게 화를 내서 살해
		치정 살해형 〈사례 3〉	여자친구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집에 무작 정 찾아가 칼로 수회 찌름. 범행후 자 살시도.
		〈사례 4〉	죽일 생각이 없었으나 실갱이중 우발 적으로 살인	무작정 집으로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격.
	이득 추구 형	강도 살인형 〈사례 5〉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자신의 얼굴을 본사람들을 모두 살해. 모두 익사시킴.
		범행 은폐형 〈사례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하 였으나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자 살해. 면접시 범행부인	자신의 사기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계획적으 로 살해.
연속 살인	복수형	〈사례 7〉	자신이 징역살이한 것에 대한 앙갚음 과 자신을 홀대한 것에 대한 앙갚음	첫째 살해 의도가 어긋나자 다른 앙갚 음 대상을 찾아 공격
		〈사례 8〉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살해	첫째사건 이후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다른 피해자들을 연속적으로 공격
	불만형	〈사례 9〉	첫째사건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 였으나적은 돈을 주자 화가나 살해. 나머지 사건은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 고 화를 내 살해.	첫째 사건이후 그 충격이 남아있는 상 태에서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피해자 들을 연속적으로 공격

4. 대량살인 범죄자와 연속살인 범죄자의 특징

가. 대량살인 범죄자와 연속살인 범죄자의 공통적인 특징

(1) 경제적 상황

대량살인 범죄자나 연속살인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

태에 처해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Fox & Levin, 2003).

〈사례 9〉의 범죄자는 사건당시 실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6식구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게다가 자신의 손녀가 발달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구하기 힘들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사례 1〉의 범죄자 역시 사업을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운 상태에서 마약과 노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진술하였다⁴⁾. 〈사례 2〉의 범죄자도 범행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 집에서 무위도식하며 지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일용직이나 영세업체의 종업원이었는데, 〈사례 7〉의 범죄자는 일용직 노동자였으나 술을 자주 먹고 일을 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8〉의 범죄자는 건강원의 종업원이었는데, 첫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들이 화투를 치고 주기로 한 2,500원의 개평때문이라는 것을 볼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⁵⁾. 〈사례 3〉의 범죄자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난 것이 돈이 없다는 이유라 생각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복권을 사고 당첨되기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례 5〉의 범죄자는 학교를 그만두고 예전에 알게된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으며, 〈사례 6〉의 범죄자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여러번 돈을 갈취한 상태였다.

이처럼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겪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은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여 범죄자들의 자기 통제력을 떨어뜨리게 되어(Fox & Levin, 2003),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4) 어려운 상태에서 노름도 하고 집사람은 짜증도 내고, 집을 나갔죠. 마약은 부산 내려가면서 88-89년 쯤부터 ... '살기 싫다, 탈피하고 싶다' 짜증나고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장인도 많이 어려워지니까, 쌓이니까 옛날에는 내가 변명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꾸중을 하고 그러면 쌓이는 스타일. 유일하게 푸는게 카지노, 경마, 집 안들어가고 지금처럼 대화도 하고 그랬으면 사건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죽고싶다 참담하다 보단... 마약, 대마.. 그거 해서 사고나는 사람을 종종 봐 와서 ... 이거(마약)는 아니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5) 손님들이 내 방에서 화투를 쳤는데, 나중에 갈 때 커피값 정도 주고 간다고 하길래 대답도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더라고요.

(2) 성장기 특징

대량살인 범죄자나 연속살인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의 생활을 살펴보면, 〈사례 4〉의 범죄자를 제외하면 모든 대량살인 및 연속살인 범죄자들이 어린 시절에 심각한 좌절을 경험했다는 것이다(Palmer, 1960).

먼저 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성장기를 보낸 경우가 많았다. 〈사례 7〉의 범죄자는 먹을 것이 부족해 동냥해 다닐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⁶⁾, 〈사례 9〉의 범죄자는 아버지가 외지로 돌아다니는 편이라 집에 거의 안 계셔서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1〉의 범죄자 역시 5살 때 부친이 사망하여 홀어머니가 11남매의 생계를 도맡아해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시절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으며, 〈사례 3〉의 범죄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편 〈사례 5〉의 범죄자는 범행 당시 16세의 청소년이었으며, 방탕한 생활로 학교를 그만둔 뒤 범죄조직에 몸담고 있었고, 〈사례 8〉의 범죄자는 고아원에서 성장하다가 그곳에서 ‘내쫓긴’ 후 객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외에도 어린 시절에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고아원에서 성장한 〈사례 8〉의 범죄자는 어린시절의 폭력경험으로 인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⁷⁾. 또한 〈사례 2〉의 범죄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유 없이 맞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학창시절에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진술하였다⁸⁾. 그리고 〈사례 3〉의 범죄자 역시 어린시절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학교 다니기가 어려웠으며,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폭행하는 등 가정

6) 아버지 있을 때 좀 낫긴 했지만.. 그때도 어려웠어요. 돌아가신 후 더 나빠졌어요. ... 어린시절에 먹을게 없어서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서 바가지 들고 얻으러 가기도 하고...

7) 고아원에서 맞고 자랐어요. (누가 때렸나?) 같은 고아들. 3-4살 많은 애들. 자기보다 힘 약하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8) 학교 생활이 힘들고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들고 ... (학교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들이 괴롭히고 그런 것. 한두 명이 갈구기도 하고, 때리기도. 돈 같은 것. 개들이 반에서 짹죽거리는 애들 있어요. (집에서 지내기 힘들었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맞고, TV 보는 걸 공부 안한다고, 놀러 다닌다고.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한편 〈사례 5〉의 범죄자는 학교를 그만둔 후 가담한 범죄조직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문제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익숙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Merton, 1938), 이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대량살인이나 연속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Fox & Levin, 2003).

(3) 대인관계

대량살인 범죄자나 연속살인 범죄자들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Fox & Levin, 2003)

〈사례 1〉의 범죄자는 어린 시절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구가 거의 없었으며, 그때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어서 여러 대인관계를 맺었으나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지 않았다고 한다⁹⁾. 〈사례 2〉의 범죄자도 어린시절 친구들과 폭행을 당해왔을 뿐 친한 친구가 거의 없었으며¹⁰⁾, 〈사례 9〉의 범죄자 역시 어린 시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¹¹⁾.

이 결과 그들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기회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례 8〉의 범죄자는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린이 강제추행 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호의나 애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잡아간다’고 협박을 하거나 ‘이쁘니까 과자를 뺏어먹고’, ‘애들 우는 것이 이뻐서’ 올리

9)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구 많지 않고, 기억에 남는 친구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거의 말을 안하고, 사회 생활은 해도 마음은 잘 안 여는 편입니다. 맞거나 때린 경험은 없습니다.

10) 다른 애는 그냥 3-4명 정도. 고등학교 친구들. 그 애들은 나를 괴롭혔어요. ... 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때 시험볼때마다 괴롭히고, 이유없이. 선생님 없을 때. (중고등학교 무엇을 하고 놀았나?) 노는 것도 없이 아무일 없고 이런저런 생각... 답답하긴 했어도 특별히 지낼 방법이 없었어요. 집 뒤가 산이라 자전거 타고, 산 좀 높은 데 다니고, 바다보러가고 ...

11) (중고등학교때 무엇을 하고 놀았나?) 기억에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기억 잘 안나요.

는 등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²⁾.

이와같은 대인관계 방식 역시, 그들이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대량살인 범죄자나 연속살인 범죄자들의 경우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대화나 타협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자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¹³⁾.

(4) 촉발요인으로서의 첫번째 살인

분석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대량살인이나 연속살인에서 이후의 사건의 촉발요인이 된 첫번째 사건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8〉의 경우를 보면, 우연하고 사소한 시비로 첫번째 살인이 발생한 이후, 한명을 죽이고 처벌을 받으나 여러 명을 죽이고 처벌을 받으나 자신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앙심을 품어왔던 사람들을 차례를 찾아가 살해하였던 것이다¹⁴⁾. 또 다른 연속살인인 〈사례 9〉의 경우도 첫번째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 사례의 첫번째 사건은 우연한 기회에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침입했던 곳에서 여학생을 살해하게 되었고, 이후 두번째 사건 부터는 첫째 사건의 충격과 긴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연속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¹⁵⁾.

12) 애들을 귀여워해서, 어떤 여자애가 7살먹은 여자애가 3살 남자 꼬맹이를 손잡고 걸어 가기에, 남자애가 이뻐서, 잡아간다고 하니까, 여자애가 막 울어서, 달래려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데, 부모에게 일러서 애를 훔쳐간다고, 부모가 양말채로 달려나오더라구요. 애가 귀여워서 장난한 거라고. 추행하려면 여자애를 하지 남자애를 끌고 가겠다. 남자애들을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이쁘니까 과자 뺏어 먹고 애들 우는 것이 이뻐서 올리고.... 반상회에서 애들 과자 뺏어먹는 사람 있다고 얘기도 나왔다고. 부모가 장난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13) 〈사례 3〉 그 친구 오기에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앉아 계시고... 그 친구가 말을 잘해서 못 이기겠더라구요. 밖에서 담배를 핀 것 같아요. 이제는 가물가물 기억나는 데... 오늘 가서 억울한거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 이 사람들을 제압한 후 얘기를 해야 내 얘기를 들어 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묶어놓고 이야기를 하자.

14) (두번째 사건의 동기는 무엇인가?) 사람을 이미 죽였으니, 이왕 사람 죽인 거.. 2년 전 사건이 생각나서

15) 첫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모든게 비관적으로 되었습니다. 첫사건 계기가, 주어답을 수 없는 사건이고 ...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전까지는 첫 사건 못 들어봤지만, 그래도 계속 걱정하고, 계속

〈사례 4〉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실갱이중 한 명 살해하게 되었고, 이후 순간적으로 나머지 한명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여 다른 한명도 함께 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¹⁶⁾, 〈사례 3〉의 경우에도 흥기로 협박하다가 일단 공격이 시작되자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공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⁷⁾.

〈사례 5〉의 경우는 강도살인으로 금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공범의 얼굴과 거주지를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것을 본 그녀의 딸(3세)도 함께 죽이게 된 것이다¹⁸⁾. 〈사례 7〉의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첫번째 살해시도가 실패하자 다른 양값음 대상을 찾아 살해하게 된 것이었다.

이처럼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폭력이 행사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면, 범죄자들은 그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고 이후의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해 또다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심리적 동기는 첫번째 살인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데에 작용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5) 범행도구

〈사례 9〉의 범죄자가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사례에서 범행도구로 ‘칼’이 사용되었으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범행은 한 건도 없었다. 미국과 같은

약 복용 ... 약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

16) 뒤에서 누나가 매달리고 아들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매달리니깐 제가 딸리더라고요. 과도를 비닐 속에 넣어놔서 빠지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모르게 떨어지면서 바로 절렸어요.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울더라고요. 뒤에 매달렸던 누나도 놀라서... 저도 놀라서 당황해서 죽이게 되더라고요. 거실 탁자에서 넘어지게 됐고 현관에서 5미터 정도 됐어요. 재판장이 따라가서 죽인 거는 이해 못하겠단. 저도 모르겠어요. 사고 난 게 다 기억이 나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쳤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야지 말이 되지... 그 시체를 놔뒀으면 괜찮겠는데... 숨기고 싶은게 있잖아요.

17) 아버지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하시더라고요. 그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여기 아주머니와 딸이 있는데.. 칼 들고 내리치는데 칼 피하느라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칼 들고 휘저은 거 같아요.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 같았어요. 제 몸이 제어가 안 되고, 제가 막 찌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데나 막 찌른 것 같아요.

18) 아줌마가 얼굴을 아니까... 죽여야겠다... 먼저 칼로 절렸어요. (공범들이) “죽여, 죽여, 아이도 얼굴을 알고 있으니가 죽여버려라”

국가의 대량살인은 총기나 폭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주로 사용되지만(Fox & Levin, 2003), 총기류 관리가 엄격한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를 쉽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분석 사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살해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나. 유형별 특징

(1) 분노형 대량살인

분노형 대량살인은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일시에 표출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행위이다(Fox & Levin, 2003).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던 사례들에서는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살해하려 했다고 보다는, 그들로부터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겠다는 의도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갔다가 기대했던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실갱이가 생기자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게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¹⁹⁾.

또한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고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였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만한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사례 4>의

19) <사례 3> 그 친구 오기에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앉아 계시고... 그 친구가 말을 잘해서 못 이기겠더라고요. 밖에서 담배를 핀 것 같아요. 이제는 가물가물 기억나는데... 오늘 가서 억울한거 이야기를 해야 겠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 이 사람들을 제압한 후 얘기를 해야 내 얘기를 들어 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묶어놓고 이야기를 하자. 테이프 5개를 샀어요. 칼도 샀어요. 다시 들어가서 테이프 던지고 칼을 보이며 서로 묶어 달라고..

<사례 2> 침엔 풀려고 (갔죠). 침부터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끝낼려 했는데 ... 처음엔 칼 안보이게 하고. 얘기 잘 안돼서, 아저씨가 욕하며 '너네 집 가서 얘기하자'. (아저씨한테) 끌려가다가 찌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딱 2-3번 찌르고 몸싸움을 했어요. ... 다른 사람은 하는 김에. 긴장은 많이 했죠. 살려두면 더 अच्छ은 소리 듣고, 아저씨만 해서는. 아줌마, 할머니 살려 두면 더 힘들 것같고,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 내고...

<사례 4> 물 좀 한잔 얻어먹고 싶다고 들어갔는데. 안쪽 거실 쪽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애가 막더라고 요. 왜 그러냐고... 사실대로 얘기했죠. 맥의 아버지하고 이런 일로 내려왔는데 아들이 무슨 얘기냐... 아들이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딱 막더라고요. ... 옆지막뒤치락 하다가 거실 탁자 있는데 까지 갔어요. 두 놈이 붙으니깐 ... 저도 순간적으로 모르게 떨어지면서 바로 절렸어요.

범죄자는 어려운일이 있으면 속으로 참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2>의 범죄자는 주변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혼자서 소일하면서 그냥 지낸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1>의 범죄자의 경우에는 마약과 도박으로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잠시 잊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²⁰⁾.

그 밖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분노형 대량살인 범죄자들은 모두 30대의 연령대에 속해있었으며, 치정살해형 범죄자를 제외하면 절도와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분노형 대량살인 유형 중 치정살해형의 경우에는 다른 세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과도 없었다. <사례 3>의 범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다니면서 방통대에 다닌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례 4>의 범죄자는 대학졸업 후 ROTC로 복무한 경험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2) 이득추구형 대량살인

이득추구형 대량살인 유형중 ‘강도살인형’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유형이며, ‘범행은폐형’은 그 밖의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유형이다²¹⁾.

따라서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강도살인 범죄자 혹은 은폐하고자 하는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살인 이외에 다른 범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두 사례 모두 공범이 있었다²²⁾.

20) 유일하게 푸는게 카지노, 경마, 집 안들어가고 지금처럼 대화도 하고 그랬으면 사건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죽고싶다 참담하다 보단... 마약, 대마.. 그거 해서 사거나는 사람을 종종 봐 와서 ... 이거(마약)는 아니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21) <사례 6>의 범죄자는 자신의 사기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여 살해하였다.

22) <사례 5>의 경우 공범들이 모두 10대의 청소년이었는데(남 17세, 여 15세, 여 17세), 남자 공범은 이전에 함께 범죄집단에 속해 있던 선배였고, 여자 공범들은 전화방에서 만나 처음으로 함께 지냈던 청소년들이었다. <사례 6>의 범죄자는 면접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에 대한 진술은 듣지 못하였다.

(3) 연속살인

‘복수형 연속살인’의 유형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하는 유형이며, ‘불만형 연속살인’은 자신의 처지 또는 사회 일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 없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공격행위를 하는 유형이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범죄자들은 자신의 문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Henry & Short, 1954). 〈사례 7〉의 범죄자의 경우 첫 번째 공격대상자는 피해자(여, 76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공격을 시도하였으며, 〈사례 8〉의 범죄자 역시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²³⁾. 〈사례 9〉의 범죄자의 경우 직접적인 사건의 책임을 질문하였을 때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어려운 삶을 살게된 원인이나 무기를 소지하게된 경위를 질문하였을 때에는 외부적인 요인을 언급하였다²⁴⁾.

그리고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본 연구의 분석 사례들만을 살펴보았을 때, 학력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하는 두 사례의 범죄자들은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대량살인 범죄자들과 연속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면접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량살인 범죄자들과 연속살인 범죄자들의 유형을 구분

23) (죽이는 순간에 속이 후련했나?) 속이 시원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까지 앙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이런 것들은, 사람 차별하고 …. 저한테 치료비로 줘야지, 왜 검찰 서기한테 돈을 주냐구요. 일부러 2년씩 끄는 거예요. 피해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소를 취하하도록. (죽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원한이 있나?) 개소주집 요놈은 싸가지 없는 놈. 술집 주인은 딸이 하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좀 안되었다는 생각은 해요. ‘내가 너무 심했나 …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까지 남한테 당해서 들어온 거지, 내가 먼저 한 적은 없어요.

24) 20살 때, 노상강도. 2년 6월받았어요. 친구끼리 몰려다니면서, 그게 죄가 될거라고 생각을 못했습시다. 너무 가혹했어요.

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서 수행한 유형화에 따르면, ‘분노형 대량살인’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가 폭발하여 발생한 살인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가족학살형’, ‘이웃학살형’, ‘치정살인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득추구형 대량살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강도살인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강도살인형’과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은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장소를 이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한 ‘연속살인’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구체적인 대상들을 살해한 ‘복수형’과 자신의 처지나 사회 일반에 대한 불만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살해한 ‘불만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대량살인과 연속살인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어린시절에도 심각한 좌절과 폭력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자기 통제력을 떨어뜨려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특성 역시 문제상황을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건에서 첫 번째 사건이 중요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극단적인 폭력이 행사되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면 그 이후의 범행을 저지르는데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여러 유형들은 이상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형별로 독특한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분노형 대량살인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에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분노형 대량살인 범죄자들은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고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만한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호작용 상황을 합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득추구형 대량살인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범행을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연속살인 범죄자들은 자신의 문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전가하려

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사례들에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학력수준이 가장 낮았고 연령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대량살인 범죄자와 연속살인 범죄자의 특성이 시사하는 바는, 가장 먼저 사소한 폭력이나 분쟁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폭력으로 전화하지 않도록 합리적 상호작용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노조절 훈련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대량살인이나 연속살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살인이나 폭력성 범죄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대다수의 폭력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를 유발시키는 촉발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많은 살인 범죄들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발생한다기보다는 순간적인 격분에 의해 발생하고 충동적으로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것들을 보완하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량살인 범죄자들과 연속살인 범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나 갈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학습 받을 기회가 적었을뿐더러 실제로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물리적·정신적 침해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여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복지 제도를 확충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수 있다면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촉발요인이 되었던 갈등과 문제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량살인이나 연속살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는 성장기에 정규교육을 자연스럽게 마칠 수 없는 빈곤층 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많은 대량살인 범죄자들과 연속살인 범죄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공교육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와 같은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까지 더해진다면, 강력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빈곤층 청소년들과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대량살인, 연속살인 범죄자들과 같은 다수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한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후에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거된 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살인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성실한 자료 수집 및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연구자들에게 그러한 정보가 공유되고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아직 대량살인과 연속살인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범죄자들을 만나 그들의 심리적 특성과 범행당시의 상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사례들을 깊이있게 탐구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스펙트럼을 밝히고 이를 유형화 한 것은 이후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연구가 많지 않은 사례를 통해 대량살인과 연속살인의 특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쉽게 일반화하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연구성과들이 더욱 축적된다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피해와 충격을 가져오는 대량살인과 연속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 · 박형민 (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다수살인, 준비속살인, 여성살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2000), 폭력범죄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형민 (2003),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 외(2008),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묵 (2005), “다수살인(Multiple Homicide)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339-383
- Brookman, Fiona (2005), Understanding Homicide, Sage Publications Ltd.
- Davies, Kimberly A. (2007), Murder Book: Examining Homicide, Pearson Prentice Hall.
- Dietz, P. E. (1986), "Mass, Serial and Sensational Homicides",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2, pp.477-491.
- Fox, J. A., & Levin, J. (1994). Overkill: Mass Murder and serial killing exposed. New York: Plenum.
- Fox, J. A., & Levin, J. (1998), “Multiple Homicide: Patterns of Serial and Mass Murder”,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23, pp. 407-455.
- Fox, J. A., & Levin, J. (2001), The will to kill: Making sense of senseless murder, Boston: Allyn & Bacon.
- Fox, J. A., & Levin, J. (2003), “Mass Murder”, Erick Hickey (ed.) Encyclopedia of Murder & Violent Crime, Sage Publications.
- Fox, James Alan, Jack Levin, and Kenna Quinet (2008), The Will to Kill: Making Sense of Senseless Murder (3rd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 Gresswell, D. M. (1991), “Psychological Models of Addiction and the Origins and Maintenance of Multiple Murder”, in M. McMurrin and C. McDougall (eds), Proceedings of the First DCLP Annual Conference (V.2) pp. 86-91. Leicester: British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esswell, D. M. and Hollin, C. R. (1994), “Multiple Murder: A Review”, British Journal

- of Criminology, V. 34/1, pp. 1-14.
- Henry, A., & Short, J. F. (1954). Suiced and Homicide. Glencoe, IL: Free Press.
- Holmes, Ronald M. and James De Burger (1988), Serial Murder, Studies in Crime , Law, and Justice vol. 2, Sage Publications.
- Holmes, Ronald M., and Stephen T. Holmes (2001). Mass Murder in the United States. Upper Saddle River, NJ:Prentice Hall.
- Keeney, B. T. (1995), "Serial Murder: A More Accurate and Inclusive Defi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itive Criminology, V. 39 (winter), pp.298-306.
- Kinney, J. A., & Johnson, D. L. (1993). Breaking point: The workplace violence epidemic and what to do about it. Chicago: National Safe Workplace Institute.
- Lester, D. (1995), Serial Killers: The Insatiable Passion, Philadelphia, PA: Charles Press.
- Merton, Robert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82.
- Miethe, Terance D., Wendy C. Regoeczi, and Kriss A. Drass (2004), Rethinking Homicide: Exploring the Structure and Process Underlying Deadly Situ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S. (1960). The Psychology of Murder. New York: crowell
- Petee, Thomas A., Kathy G. Padgett, and Thomas S. York. 1997. "Debunking the Stereotype: An Examination of Mass Murder in Public Places." Homicide Studies, 1 (4):317-337.
- Stone, M. H. (2001), "Serial Sexual Homicid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4/2, pp. 107-134.

The Types and Traits of Mass Murderers and Spree Murderers in Korea

Bark, Hyung-Min *

Mass murder and spree murder that is the subordinate types of multiple murder, can be read into increasing tendency on official statistics in Korea. This study tried to patternize of mass murders and spree murders by analyzing the interview data of murderer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analyze their common traits and characteristic traits. The consequence of analyzing is as following ; mass murders can be patternized into ‘anger type’(family annihilator / neighbor annihilator / passion murderer) and ‘gaining type’(burglar / crime concealer) ; spree murders into ‘revenge type’ and ‘discontent type’. The common traits of mass murders and spree murders are ‘frustration and depression’, ‘lack of communication skill’, ‘first murder as concussion fuse’. The anger type(in mass murders) has negative communication before violent action usually, and most gaining type murders(in mass murders) are committed on purpose with accomplices. And spree murderers have tendency of externalization of responsibility, so blame other for their personal problem.

❖ Key words : mass murder, spree murder, frustration, communication skill, externalization of responsibility

투고일 : 2009. 2. 11 / 심사(수정)일 : 2009. 2. 23 / 게재확정일 : 2009. 2. 27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Sociology